광주 전기자동차 본거지 만든다

市, 클러스터 협의체와 2012년까지 400억 투자 MOU

완성차·차량 개조·부품 개발·AS망·충전 인프라 구축

광주가 전기자동차로 부상한다. 광주시는 28일 전기자동차 클러스터(EV-Cluster)협의체 참여업체인 (주)지앤디윈텍·(주)이룸지엔지·(주)탑알앤디·(주)윌링스·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 5곳과 2012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전기자동차 클러스터협의체는 광주시를 거점으로 자발적 공동협력을 통해 전기차 기술을 선도하고, 공동연구·개발생산·마케팅으로 국내외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광주시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광주지역을 전기자동차의 완성차부터 기존차량의 개조 및 부품개발, 완벽한 AS망과 충전 인프라를 갖춘 전기자동차 본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1단계로 관공서 등의 관용차(경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고, 2단계 지역 내 1t 화물차 개조, 3단계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및 소형차 개조, 4단계에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과 일반 차량 개조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기자동차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기차 AS망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도 병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녹색성장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에 소재한 (주)지앤디윈텍은 인버터, 무선송신기 등을 생산해 국내 대기업인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광주의 (주)탑알앤디는 지앤디윈텍과 제휴해 근거리 저속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이룸지엔지는 전기차 제작 및 개조에 관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며, 경기도 용인의 윌링스는 컨버터 및 전기변환 장치생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는 이들 기업들에 첨단기술을 개발·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기공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기공식이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 부지에서 로봇 관련 산·학·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 가전로봇 중심지 만들겠다"

조연술 센터장 인터뷰

"광주가 가전로봇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7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내 부지에 첫 삽을 뜬 가전로봇지원센터 조연술 센터장은 "로봇산업은 10대 미래산업 중 하나"라며 "국내 최대 생활가전 집적지인 광주를 가전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백색가전 산업은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 등지로 이동하면서 시들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색가전의 경쟁력은 로봇을 접목한 프리미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돕는 가사도우미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며 "유비쿼터스와 로봇이 결합한 홈서비스(가사도우미) 로봇이 히트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집중 연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가전로봇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일환으로 설립됐다. 광주테크노파크 부지 1만 6500㎡에 총 28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1년 5월 완공된다.

센터는 청소·가전로봇 부품 국산화를 통한 공급 기지화, 가전로봇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품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로봇 관련 기업 50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 장비를 제공한다. 또 시제품 개발과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상장사, 수출보다 내수 증가폭 커

내수 경기 활성화로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내수매출 증가폭이 수출매출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와 KPX화인케미칼은 수출·내수 매출이 동시에 증가했다.

2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 제조법인 12개사의 2010년 1분기 수출·내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수출금액은 465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71%(4358억원)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3.83% 감소한 데 비해 내수 비중은 3.83% 증가했다.

내수 매출규모는 5755억원으로 전년동기(4623억원) 보다 24.48% 증가, 수출을 압도했다.

수출 매출을 주도한 업종은 자동차 관련 산업·화학 부문이었다.

수출증가액 상위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유신소재로 168억원, 2위는 KPX화인케미컬(99억2100만원), 3위는 금호타이어(83억9200만원)였다.

내수증가액 1위사는 금호타이어(810억원)였으며 조선내화(241억500만원)·대유디엠씨(138억8500만원)순이었다.

수출 부문에서 화천기공·DSR제강·보해양조·대유디엠씨·동아에스텍·부국철강·조선내화 등이 고전했다. 내수에서는 대유신소재·동아에스텍·로케트전기·보해양조·셀런 등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내수 2개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올린 회사는 금호타이어와 KPX화인 케미칼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변칙상속·증여 탈세혐의 국세청 2000명 예비 조사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0명의 명단을 확보, 이달 들어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예비조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여 위·탈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탈루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2000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가로 3000명의 명단을 선정, 조사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조기검증시스템이 지난 4월 구축돼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최근에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 중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부동산·주식·금융자산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신고소득 등 자금출처를 감안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골라냈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 1차적으로 2000명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내 예비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안 되고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자는 오는 7월께부터 본격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은 제안 최대 1억 드립니다

신세계 고객제안 도입

신세계백화점은 고객으로부터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 등 백화점 경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고객제안' 제도를 도입, 좋은 제안을 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객 불만이나 매장과 관련한 요청을 주로 받던 기존 '고객의 소리' 제도를 넘어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으로, 업계에서는 처음 운영된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고객전략본부 서비스담당 내에 구성된 고객 제안 전담부서와 심사위원회가 제안에 대한 평가와 적용, 결과 통보 등을 맡는다.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다. /연합뉴스